

변방 극우세력, 유럽 정치 중심으로

이탈리아 '우파 연합' 총선 승리
상·하원 모두 장악 집권 초읽기
스웨덴민주당 원내 제2당 올라
프랑스 국민연합 우파 간판 등극

정치권 변방으로 치부되던 극우 세력이 정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요 정치세력으로 올라섰고 스웨덴에서는 원내 제2당이 집권당 연합의 제1당이 된 데 이어 이탈리아에서는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세력이 주축이 된 이탈리아 우파 연합은 투표 뒤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예상대로 상·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에 있는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 형제들(FdI) 대표는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2차대전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지도자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극우 세력이 유로존 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집권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우파 연합이 승리한 요인은 복잡하지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는 8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9.0% 상승해 7월의 8.4%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탈리아 극우 세력은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과 구매력 감소라는 유권자들의 좌절감을 선거전에서 최대한 활용하며 지지세를 불렀다.

멜로니가 이끄는 FdI은 지난해 2월 마리오 Дра기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할 때 유일하게 내각에 참가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았다.

생활고 속에 지난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가 정부지출 확대,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한 FdI에 쏠리면서 멜로니는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누렸다.

극우 세력이 힘을 키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마찬가지로 이민과 난민에 적대적인 정서도 이들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일조했다.

멜로니는 최근 아프리카 이주민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큰 논란을 빚었다.

2차 가해란 비판과 함께 인종에 대한 혐오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멜로니 대표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이탈리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내놨다.

스웨덴도 극우 성향의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선 네

오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원내 제2당에 올라 화제가 됐다. 스웨덴민주당의 득표율은 2010년 5.7%, 2014년 12.9%, 2018년 17.5%에서 이번에 역대 최대인 20.6%를 기록했다.

2010년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할 때만 해도 스웨덴민주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15년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난민 유입이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이민자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퍼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이민자 거주지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스웨덴 국민들의 이민자 혐오에 불을 붙였다.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를 파고든 스웨덴민주당은 '이주민 제로', '외국인 범죄자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폭넓은 지지를 얻어냈다.

프랑스도 지난 6월 총선에서 유럽의 간판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정통 보수정당 공화당(LR)을 제치고 우파 간판이 됐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인 콘라트 벡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스웨덴까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패한 범유럽 정통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유럽 시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美 민주당 지지자 56% 바이든 출마 반대

지지율 39%로 다소 상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는 2024년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9월 18-21일 전국 100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전체의 56%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9%였으며 53%는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말한 대로 내 의도는 출마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내 확고한 결정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밀문서 취급, 금융사기·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의 47%는 2024년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는 응답(46%)보다는 1%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재대결을 벌일 경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48%)이 트럼프 전 대통령(46%)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연합뉴스

러시아 동원령 여파 핀란드 국경 탈출 행렬

국경 검문소 앞 500m 차량 대기

러시아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러시아에서 핀란드 국경을 향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며 25일(현지시간) 국경 검문소 앞 줄이 500m에 달했다.

dpa는 러시아에서 핀란드 국경으로 오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트위터에 "일요일 오전 8시 현재 발리마 검문소에 러시아 쪽으로 차량 줄이 500m 늘어났다"고 말했다.

핀란드 남부 발리마 검문소는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며 러시아 제2 도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약 3시간 거리다.

이 관계자는 24일에 국경을 넘어 핀란드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8572명으로 1주 전의 5286명에 비해서 3000여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생계 조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비자

를 갖고 핀란드를 경유해 가려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서 위조나 숲 지역을 통과한 불법 입국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생계 조약은 유럽 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 1300km를 맞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관문으로 이용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후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빠져나오려는 행렬이 크게 늘었다.

APT는 이날 오전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 스페토고르스크 국경에도 긴 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국경 폐쇄 소문이 돌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항공권을 산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에서 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자 관광 목적 러시아인 입국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중 화물열차 단등서 출발... 150일만에 운행 재개

코로나 진정... 하루 1~2회 운행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북중 화물열차가 26일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짙은 안개가 깔린 가운데 오전 7시 43분께(현지 시간) 10여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 중조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하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포착됐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은 중단된 지 150일 만이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단둥과 북한의 코로나19가 진정돼 화물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며 "하루 1~2차례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신의주에서 화차가 빈 채 들어와 물자를 싣고 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단둥에서 먼저 화물열차가 신의주로 넘어갔다.

단둥의 소식통은 "단둥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화물을 싣어놓고 북한으로 가지 못했던 열차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8월께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월 16일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둥이 도시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난 4월 29일 다시 멈췄다.

단둥에서는 7월 18일부터 70일째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5월 북한에서 코로나19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북중 화물열차가 26일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7시 43분께 화차를 싣은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 중조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넘어가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포착됐다. 사진은 단둥에서 압록강철교 넘어 신의주로 가는 화물열차. /연합뉴스

가 번지면서 운행 재개가 늦어졌다.

해상교역에만 의존해 물자 부족을 겪어온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뒤 중국에 지속해서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해왔다.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단둥은 북한 국경 봉쇄와 화물열차 운행 중단, 코로나19 확산과 도시 봉쇄 등으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한 단둥 주민은 "북중 교역은 단둥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며 "교역이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리·런던서 이란 당국 규탄 히잡 연대 시위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의문사한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한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도 연대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24일부터 이들 연속으로 이란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파리 중심가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추산 약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란 풍속단속 경찰에 붙들려 조사받던 중 사망한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을 규탄하고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분위기로

시작됐으나 일부 참가자들이 인근 이란 대사관으로 향하면서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시위대 사이에선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이아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슬람 공화국에 죽음을'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영국 런던에서도 주영 이란 대사관 접근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져 시위대 5명이 체포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대사관 외부에 설정된 경찰의 차단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시위대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런던 경찰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려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져 경찰 병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뼈, 룸, 홀덤바)</p>	<p>● 월수익 -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h3>010-6670-9800</h3>		<h3>010-2614-9801</h3>